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7

“우리도 함께 뛰다”

남도의 봄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질주가 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합친 질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KT 호남유선네트워크운용팀은 “완벽한 통신 지원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며 3·1절 마라톤대회 참가자 전원의 완주를 다짐했다.

“시민과 소통위해 뛰고 또 뛰겠소”

■ KT 호남유선네트워크운용팀

“완벽한 통신 지원으로 고객 소통 책임 지겠습니다.”

제47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에 참가하는 KT 호남유선네트워크운용팀 마라톤 클럽 ‘두두두(Do Do Do)’ 회원들은 “고객 만족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고객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한 품질을 알리겠다는 각오다.

‘두두두’는 지난 2004년 결성됐다. 결성 이듬해인 2005년 3·1절 마라톤대회에 첫 출전, 올해로 8년째 인연을 맺고 있다. 회원 30명 중 이번 대회에는 25명이 된다.

이들은 3·1절 대회를 대비해 화순 너릿재도로와 나주 승촌보 등에서 체력을 다

지고 있다. 회원 단합을 위해 1년에 한 두 차례 지리산 무박 중주도 하고 있다.

위명한 회장은 “망 관리를 담당하는 유선네트워크단은 업무 특성상 야간근무가 많다”며 “그만큼 체력소모가 많아 평소 건강관리와 체력보강이 필수적인데 마라톤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성천(50·과장) 총무는 3·1절 마라톤 대회를 통해 폴코스에 데뷔했다. 그는 2005년 3·1절 대회때 폴코스 참가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욕심이 나 도전했다고 회상했다. 올해 그의 목표는 ‘330클럽(3시간 30분내 진입)’ 가입이다.

조종형 회장은 울트라 마라톤 마니아다. 경기 강화에서 강원 동해까지 국토 횡단 코스를 3박4일동안 뛰었다.

반면 김구현(50) 차장은 마라톤을 즐긴다. 그래서 하프 위주로 뛰다. 평소 헬

스와 등산으로 체력을 다진다는 김 차장은 “힘든 코스를 함께 넘다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진다. 직원들간 화합과 업무 협조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부임한 이철규(52) 호남유선네트워크팀장은 ‘두두두’ 든든한 후원자다. 동호회 활동을 휴일에만 할 것이 아니라 연차를 활용해 평일에도 활동하라고 권장 정도다.

호남유선네트워크운용단은 일반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유선망을 관리하는 곳이다. 일반전화 교환기·인터넷 장비·전원시설·광케이블 등을 유지 보수하고, 광주·전남·전북지역의 통신망시설을 감시 및 제어한다. 한마디로 ‘KT 통신 119센터’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봄을 여는 3·1절 마라톤대회에 야구 꿈나무들의 유쾌한 질주가 펼쳐진다.

야구 꿈나무들 유쾌한 마라톤 도전

■ 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

야구사랑으로 똘똘 뭉친 꿈나무들이 마라톤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광주지역 리틀야구팀인 광주서구청포비스리틀야구단(이하 서구청포비스, 단장 손영생·감독 오동찬)이 제47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유쾌한 질주를 다짐하고 있다.

학교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야구 열정은 진짜 선수를 못지 않다. 연습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고 엘리트 체육 위주의 환경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들은 주말 그라운드를 달리면서 야구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2010년 7월 창단 후 첫 전국대회에서 0-23의 대패를 당하며 승부의 세계에 첫 발

을 내디뎠던 이들은 지난해 120개 팀이 참가한 속초시장기 전국대회에서는 8강에 진출하며 당당히 포비스의 이름을 알렸다. 올 시즌에도 전국대회 4강 진입이 포비스의 목표다.

이를 위해 이들은 겨울방학 동안 제주도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했다. 제주도에 전지훈련 온 다른 지역팀들과 교류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알찬 겨울을 보냈다.

탄탄한 팀워크 만큼이나 내적인 발전을 중요시 하는 포비스는 마라톤을 통해 새봄을 맞이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마라톤 대회와 인연을 맺은 이들은 3·1 마라톤 대회를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있다.

팀을 이끌고 있는 오동찬(37)감독은 “운동이 기본이지만 리틀야구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선

수 상호간의 융화를 중시하고 있다. 또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을 가꾸는 게 포비스의 가장 큰 목표다”며 “지난해 마라톤 대회를 뛰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낀 것 같다. 이번에도 함께 완주를 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회 참가 소감을 밝혔다.

이번 마라톤대회에는 ‘포비스패밀리’가 총출동 할 예정이다. 그라운드를 뛰는 아이들을 응원하고 격려하던 아버지들이 지난해 ‘보는 야구’에서 ‘즐기는 야구’를 선택하면서 사적인 야구팀을 구성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는 포비스 부자 선수들은 3·1 마라톤대회에서 화합과 건강을 위한 합친 질주를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경태 4이닝 무실점 나지완 대형 홈런 ‘깜’

KIA ‘오키나와 리그’ 주니치에 2-3 역전패

KIA의 ‘오키나와 리그’가 시작됐다. 일본으로 캠프를 옮긴 KIA 타이거즈가 22일 오키나와 차관구장에서 주니치 드래곤즈와의 연습경기를 치렀다.

일본 캠프 첫 연습경기는 2-3 역전패로 끝났지만 박경태가 4이닝 무실점 호투를 선보이며 좌완 고만민에 빠진 마운드에 숨통을 틔워줬다. 4번 타자 임무를 맡은 나지완은 대형 홈

런을 터트리며 거포 본능을 발휘했다.

선발로 등판한 박경태는 4이닝을 2피안타 무사사구 무실점으로 깔끔하게 막아냈다. 탈삼진도 3개를 기록하며 좌완 선발 후보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직구는 최고 140km를 찍었고 커브·슬라이더·투심·포크볼로 주니치 타선을 공략했다.

나지완은 1-3으로 뒤진 8회초 1사에서 상대 투수 오오노의 초구를 공

략해 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역풍을 뚫고 외야 펜스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다.

KIA는 2회초 이현근의 2루타로 선취점을 기록했지만 임준혁이 6회말 동점을 허용한 뒤, 7회말 진해수가 2사후 연속 4안타를 얻어맞으면서 승부가 뒤집혔다.

한편 주니치와의 대결을 시작으로 오키나와 리그에 돌입한 KIA는 23일 요코하마와 일본에서의 두 번째 연습 경기를 갖고 전력 점검에 나선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나지완이 업그레이드된 스윙으로 스프링캠프 MVP를 노리고 있다.

“추신수가 확 달라졌다”

美 언론 “정신적으로 성숙”

추신수(30·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달라졌다.

미국 애리조나주 굿이어 베이스볼 파크에서 개인 훈련 중인 추신수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 나온 얘기가.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 ‘플레이인 딜러’는 야구를 대하는 추신수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22일 보도했다.

추신수는 지난해 음주 파동과 부상 등이 겹쳐 생애 최악의 시즌을 보낸 이후 정신적으로 성숙해졌다고 말했다. 야구 하나에 집착해 살아왔던 자신에게 지난해의 경험은 삶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추신수는 “이전까지는 앞만 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변까지 살필 수



있을 정도로 시야가 넓어졌다”고 했다. 추신수는 “올 시즌 500~600타수를 기록한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단지 경기장에 나가서 즐겁게 뛰고 싶다”고 말했다.

올 시즌 연봉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의 몸값에 재계약한 점도 추신수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추신수는 올해 490만 달러(약 56억원)에 클리블랜드와 연봉 협상을 마쳤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 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사극인테너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리넨, 허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더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뒀방울, 천장방울, HID램프, LED램프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차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전국 최저가 판매

국내 최대 500평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격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ATR) 50% 특별할인 행사

- ▶ 전면 179,000원 ⇒ 85,000원
- ▶ 후측면 239,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정성)

천연가죽시트

세련된 정교함이 돋보이는 가죽시트

최저가

- ▶ 승용 5인기준 38만원 ⇒ 28만원 부터
- ▶ RV 5인기준 70만원 ⇒ 30만원 부터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 알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펑크 펌크 무상점검
- 타이어와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러쉬용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 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